

통상교섭 조직의 국가간 비교사례연구: 퍼지셋 이념형 분석방법의 적용*

정병화
박형준**

퍼지셋 분석방법은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질적·양적 검토가 가능한 분석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속성공간을 통해 이념형의 개념을 설정하는 퍼지셋 이념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각국의 통상교섭 조직의 유형이 가지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및 사회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각국의 유형적합도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5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국가의 통상교섭 담당 부처가 산업, 외교, 경제에 부여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교섭 조직을 산업형, 외교형, 경제형, 독립형과 혼합형이라는 다섯 가지 이념형으로 분류하였다. 통상교섭 조직의 제도적 특징을 정치제도에서는 정부유형과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통해, 경제제도에서는 경제분야(GDP 규모, 1인당 GDP 규모, 경제성장률, 경제자유도), 무역분야(무역의존도, 교역규모, FTA 건수, WTO 분쟁건수)와 산업투자(산업구조, 자원보유정도, 투자협정규모)분야를 통해 살펴보고, 사회제도에서는 인구, 경쟁력지수와 영입환경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산업형과 독립형이 개도국의 특징을, 외교형과 혼합형이 중견 이상 선진국의 특징을 보였으며, 경제형은 중견 국가의 모습을 보임을 확인했다. 검토대상 50개국 중 많은 국가들이 소속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유형적합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경제, 사회제도의 발전여부가 통상교섭 조직의 상이한 유형을 이해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독일, 브라질 등 유형적합도가 매우 낮은 국가도 확인했는데, 이를 통해 제도적 발전 기준의 한계도 확인했으며, 국가별 조직유형의 상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제도발전 이외의 다른 요인도 작용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주제어: 통상교섭조직, 퍼지셋 이념형분석, 비교사례연구, 정부조직개편

I. 서론

정부조직의 개편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조직의 기능과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832)

** 교신저자

역할의 재설계와 재조정을 통해 효과를 얻고자 하는 기능주의적인 행정개혁의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정부조직의 개편을 추구하였다(문명재, 2008). 통상교섭조직의 경우 국제적인 통상환경의 변화내지는 기존 조직의 저성과에 대한 비판으로 정부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왔다. 우리나라 통상교섭 담당 정부부처는 크게 세 차례 변화를 겪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 다자간 시장 개방 협상종료 직후인 1994년 통상산업부가 신설되었고, 금융위기 이후인 1998년 외교부가 외교통상부로 바뀌면서 통상교섭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며 2013년에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통상기능이 이관되었다. 통상기능은 이와 같이 주로 산업부처와 외교부처가 번갈아 가면서 통상교섭을 담당했으며, 특히 정권의 변화와 함께 통상교섭 담당부처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김정수, 1998: 38-44). 통상의 기능이 대외관계라는 측면에서 외교적 기능과 산업관련분야라는 점에서 산업적 기능이 혼재하는 분야로서 어떠한 부처가 통상기능을 맡는 것이 통상정책의 수행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상조직의 경우 담당 관료들의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정권이 변화할때마다의 정부조직 개편은 이러한 전문성의 상실을 가져오는바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통상조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통상조직은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외교관계 등에 따라 적절한 조직의 형태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통상조직의 이념형을 탐색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절한 통상조직의 유형을 찾고자 한다. 각 국가의 통상교섭 조직은 나라마다 다르며, 이는 통상조직이 대체로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 행정조직의 역사성, 의회와의 관계와 통상정책의 목표 등 나라가 처한 현실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최낙균, 2002: 14). 따라서 각국의 통상조직의 담당부처 유형과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우리의 통상교섭 부처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50개 국가의 통상교섭 담당조직의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통상교섭조직의 유형화와 이를 통해 각 유형에 소속되는 국가의 정치제도, 경제제도와 사회제도가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퍼지셋 이념형 분석방법(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이는 이념형의 개념에 분석대상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퍼지 소속점수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통상교섭조직은 산업에 비중을 두는 산업부처가 담당하는 유형(산업형), 외교에 비중을 두는 외교부처가 담당하는 유형(외교형), 경제에 비중을 두는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유형(경제형), 이와는 무관하게 독립기구가 담당하는 유형(독립형)과 여러 부처가 다양하게 담당

하는 유형(혼합형)의 다섯 가지 이념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세 가지 부문의 비중을 고려한 이유는, 각국의 통상교섭 조직이 교섭활동 뿐 아니라 세 가지 업무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거나 별개로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이념형에 속하는 50개 국가의 제도특징 파악과 상호간 비교를 위해 정치제도,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에 대한 18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통상교섭은 경제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고, 경제제도 지표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일부 지표의 경우 수치화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퍼지점수를 도출하여 활용했다.

II. 우리나라 통상교섭 조직의 변화

1. 우리나라 통상교섭 조직의 변화

우리나라 통상교섭 담당조직의 변화는 어떠한가? 크게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 정부 수립 이후부터 살펴보면 상당기간 동안 특별히 정해진 부처가 없었다. 1994년까지도 외무부는 대외교섭을 담당하고 산업부가 무역을 담당하는 등 통상교섭 부처와 관련해서 명확한 구분은 없었다. 이는 1980년대 중반까지도 교섭할 주요 통상현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통상담당 부처에 대해 별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통상현안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UR 협상이 종료된 1994년에 들어서서는 새로이 변화된 국제 환경에 적응한다는 차원에서 통상산업부에 통상교섭 기능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의 실제 교섭은 해당 부처가 분산적으로 담당하였다. 통상문제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통신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했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안전문제, 소비자 인식과 과세문제 등 여러 분야가 현안으로 대두함에 따라 여러 부처의 관여를 필요로 했다(김정수, 1998: 38-44). 이러한 분산적 교섭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는 있었으나, 전체 총괄기능(Control Tower)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도 야기했다. 통상교섭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 부처 간 이견과 중복을 조정하지 못함에 따른 갈등과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대외교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 기능이 외무부로 일원화 되었다. 외무부는 대외통상교섭 기능을 수행하고 통상산업부는 산업진흥과 관련한 업무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한 동시 다발적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특히 미국과의 거대 FTA 협상으로 인한 국내적 갈등과 비판이 대두했다(김기홍, 2012: 79-86). 15년여 기간 통상교섭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통부족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정부변경과 함께 통상교섭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 통상교섭권 이관이 결정되자 이전의 통상조직 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재연되었다(홍석빈, 2014: 263).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산업과 통상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산업부처 담당 필요성에 공감했다. 부정적인 시각은 다년간 외교통상부가 쌓아온 교섭능력을 사장하고 국내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우려를 지적했다.

2. 통상교섭 조직 관련 선행연구

우리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상교섭 조직의 변화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홍석빈, 2014: 264). 외국의 통상교섭 조직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정부조직 만큼 우리의 통상교섭 조직 개편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능적 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교섭 관련 선행연구를 네 영역으로 나누었다.¹⁾ 첫째는 통상조직의 기능 및 제도적 개선과 관련한 연구다. 통상 담당부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이로리, 2002; 최원목, 2003; 최욱·김세원·유재욱 외, 2006), 대외 통상 협상의 문제점과 인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곽노성, 2002), 외교통상 조직의 발전과정의 서술(최무현, 2007; 구민교, 2009) 등이 있다. 둘째로는 바람직한 교섭기구와 관련한 연구다. 독립기구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최병선, 1999; 최원목, 2003),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연구(김정수, 1998; 방청록, 2002; 곽노성, 2002; 김기홍, 2012), 해당부처가 담당함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최병선, 1999; 김인기, 2002)가 있다. 셋째는 통상조직 갈등 및 교섭기능 이관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다. 통상조직들 간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최병선, 1999; 최욱·김세원·유재욱 외, 2006),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구조와 절차에 관한 연구(최태욱, 2007; 하태수, 2015), 통상교섭 기능이관의 산업계 영향 가능성에 대한 연구(홍석빈, 2014)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통상협상에 대한 연구(정인교, 2013)가 있다. 넷째는 외국의 통상교섭 조직과 관련한 연구(최낙균, 2002)로서 하나의 부처가 담당하는 통합형과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분산

1) 홍석빈(2014: 265-266)의 작업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분류하였다.

형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외국의 통상교섭 조직을 산업, 외교, 경제의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다.

〈표 1〉 통상교섭 조직 관련 선행연구

| 구분 | 내용 | 관련 연구 | 비고 |
|----------------------|---|---|----------------------|
| 조직개선 관점 | 독립조직 필요 | 김정수(1998), 방청록(2002), 곽노성(2002), 김기홍(2012) | 산업부, 외교부 담당 주장 없음 |
| | 독립조직 반대, 담당부처 담당 | 최병선(1999), 김인기(2002), 최원목(2003) | |
| 기능개선 관점 | 정책조정 기능개선, 전문성 강화, 소통개선, 갈등해소 및 제도화 | 이로리(2002), 곽노성(2002), 최원목(2003), 최욱·김세원·유재욱 외(2006) | 통상교섭본부 대상 제언 |
| 통상정책 영향관점 | 산업세력의 부정적 영향, 산업-통상 연계 바람직 | 홍석빈(2014), 정인교(2013) | |
| 통상체계 개편원인 관점 등 | 통상교섭본부 역사 및 평가 | 황윤원(2003), 최무현(2007), 구민교(2009) | |
| | 외국의 통상조직 분석 | 최낙균(2002) | |
| | 통상정책 참여 및 부처 간 논쟁 | 최태욱(2007), 김기홍(2012), 하태수(2015) | |
| | 통상조직 변동원인 | 김정수(1998) | |
| | 통상국가론에 따른 조직개선 | 하태수(2008) | |

Ⅲ. 통상교섭 조직의 유형

50개 검토 대상국의 통상교섭 담당조직에 대한 이념형 유형화를 위해 이들 국가의 통상교섭 담당부처가 부여하는 산업비중, 외교비중과 경제비중의 세 가지 요인에 주목했다. 이 세 가지 요인의 퍼지집합에 조사 대상 50개국의 소속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퍼지점수로 나타내고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세 가지 요인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부처가 통상교섭과 함께 이들 업무를 개별 또는 혼합적으로 담당하거나 이와는 무관하게 통상교섭만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산업비중(A), 외교비중(B)과 경제비중(C)이라는 세 가지 퍼지집합이 만들어내는 속성공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속성공간에는 세 가지 속성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모두 8개의 통상교섭 조직의 이념형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집합 기호로 표시하면, $A*B*C$, $a*b*c$ 가 된

다.2) 그런데 이들 유형 중 유형미상 조합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실 세계에서 유사한 각 유형의 속성공간과 퍼지집합 이념형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유형미상은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통상교섭 뿐 아니라 경제도 담당하는 가상적 유형으로서, 이러한 부처조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표 2〉 통상교섭조직 유형의 속성 공간과 퍼지집합 이념형

| 산업비중 | 외교비중 | 경제비중 | 퍼지집합 이념형 |
|-------|-------|-------|------------|
| A(높음) | B(높음) | C(높음) | A*B*C 혼합형1 |
| A(높음) | B(높음) | c(낮음) | A*B*c 혼합형2 |
| A(높음) | b(낮음) | C(높음) | A*b*C 산업형2 |
| A(높음) | b(낮음) | c(낮음) | A*b*c 산업형1 |
| a(낮음) | B(높음) | C(높음) | a*B*C 유형미상 |
| a(낮음) | B(높음) | c(낮음) | a*B*c 외교형 |
| a(낮음) | b(낮음) | C(높음) | a*b*C 경제형 |
| a(낮음) | b(낮음) | c(낮음) | a*b*c 독립형 |

- * 유형 미상은 가설적 조합(hypothetical combination)으로 볼 수 있음.
- * 산업과 경제를 함께 담당하는 부처는 산업형으로 간주기로 하고 산업형2로 표시함.
- * 독립형은 독립기구에서 통상교섭만을 수행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 고려할 수도 있는 등 가변적이므로 abc 유형으로 분류함.
- * 일부 국가는 산업부처, 외교부처와 경제 부처가 모두 분산적으로 통상교섭을 수행하므로 혼합형1로 분류하고, 일부 국가는 산업부처와 외교부처가 함께 통상교섭을 수행하므로 혼합형2로 분류함.

이는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부처가 통상 이외의 수행 업무에 있어서 산업업무 비중이 크면 산업형, 외교업무 비중이 크면 외교형, 경제업무 비중이 크면 경제형, 통상업무만을 담당하면 독립형, 그리고 통상업무를 여러 부처가 함께 담당하면 혼합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통상교섭은 수출 등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산업진흥,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수단을 하나 또는 복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수단을 중심으로 어느 분야에 강조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그 이념형의 유형을 정했다. 이들 유형 중 산업형은 산업 진흥을 중시하는 부처가 통상교섭을 담당하므로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제2차 산업

2) 퍼지집합 기호에서 소문자는 대문자로 표기된 집합의 부정을 의미한다. 이념형의 개념화 과정은 김종일의 “대륙복지국가의 활성화정책 추이에 관한 퍼지집합 이념형 분석”(2010)을 참고하였다.

비중으로 보았다. 이의 비중을 퍼지점수화 해서 각 유형별로 비교했다. 50개국의 제2차 산업 퍼지점수를 파악하고, 동 퍼지점수의 중위점 이상 국가 수가 가장 많은 경우를 제2차 산업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산업형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형의 제2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음을 확인했다. 외교형은 통상교섭을 중요한 외교목표로서 추진하며 외교의 비중이 높은 국가로 간주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의 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입건수와 유엔분담금 비율과 관련한 각 유형의 퍼지점수의 중위점이 가장 많은 국가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외교형의 관련 퍼지점수가 산업형이나 경제형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형의 경우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통상교섭도 담당하므로 통상교섭을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본다. 이 유형에서는 경제 변수가 통상교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GDP로 환산한 정부지출과 세금부과를 기준으로 하여 50개국의 경제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경제형에 속한 국가들이 GDP 대비 정부지출이 적고 세금도 적게 부과함을 확인했다. <표 3>은 이념형 기준과 퍼지점수를 나타낸다.

<표 3> 이념형 기준과 퍼지점수³⁾

| 국가 | 이념형 기준 | | | | | | | | | | | | 조직유형 |
|-----|--------|------|------|------|------|------|-----|------|------|------|-----|------|------|
| | 산업 | | 경제 | | | | 외교 | | | | | | |
| | 2차산업 | 퍼지점수 | 과세 | 퍼지점수 | 정부지출 | 퍼지점수 | 공관수 | 퍼지점수 | 분담금 | 퍼지점수 | 안보리 | 퍼지점수 | |
| 중국 | 43 | 0.77 | 69.7 | 0.5 | 74.3 | 0.74 | 228 | 0.75 | 5.15 | 1 | 상 | | I |
| 독일 | 30 | 0.54 | 61.5 | 0.44 | 41.3 | 0.41 | 399 | 1 | 7.14 | 1 | 5 | 0.83 | I |
| 프랑스 | 19 | 0.4 | 47.7 | 0.34 | 2.5 | 0.02 | 334 | 1 | 5.59 | 1 | 상 | | I |
| 러시 | 36 | 0.64 | 82.2 | 0.59 | 56.2 | 0.56 | 178 | 0.58 | 2.44 | 1 | 상 | | I |
| 아르 | 29 | 0.52 | 66.1 | 0.47 | 51.3 | 0.51 | 147 | 0.48 | 0.43 | 0.43 | 9 | 1 | I |
| 멕시코 | 34 | 0.61 | 74.9 | 0.53 | 76.4 | 0.76 | 89 | 0.29 | 1.84 | 1 | 4 | 0.67 | I |
| 한국 | 38 | 0.68 | 73.8 | 0.53 | 69.7 | 0.69 | 161 | 0.53 | 2.0 | 1 | 6* | 1 | I |
| 필리 | 31 | 0.55 | 79 | 0.56 | 89.6 | 0.89 | 194 | 0.63 | 0.15 | 0.15 | 4 | 0.67 | I |
| 콜롬 | 36 | 0.64 | 80.1 | 0.57 | 74.4 | 0.74 | 64 | 0.22 | 0.26 | 0.26 | 7 | 1 | I |
| 이스 | | | 60.6 | 0.43 | 48.8 | 0.49 | 98 | 0.32 | 0.4 | 0.4 | 0 | 0 | I |
| 남아 | 30 | 0.54 | 70.1 | 0.5 | 69.9 | 0.7 | 159 | 0.52 | 0.37 | 0.37 | 2 | 0.33 | I |
| 체코 | 38 | 0.68 | 82.5 | 0.59 | 47.3 | 0.47 | 319 | 1 | 0.39 | 0.39 | 0 | 0 | I |
| 말레 | 38 | 0.68 | 85 | 0.61 | 74.3 | 0.74 | 102 | 0.33 | 0.28 | 0.28 | 4 | 0.67 | I |
| 싱가 | 25 | 0.45 | 91.2 | 0.65 | 90.1 | 0.9 | 75 | 0.25 | 0.38 | 0.38 | 1 | 0.17 | I |
| 베트 | 39 | 0.7 | 79.3 | 0.57 | 75.1 | 0.75 | 78 | 0.26 | 0.04 | 0.04 | 1 | 0.17 | I |
| 태국 | 37 | 0.66 | 81.1 | 0.58 | 82.2 | 0.82 | 107 | 0.35 | 0.24 | 0.24 | 0 | 0 | I |
| 뉴질 | 23 | 0.41 | 71 | 0.51 | 46 | 0.46 | 121 | 0.4 | 0.25 | 0.25 | 3 | 0.5 | F |
| 아일 | 26 | 0.46 | 73.6 | 0.53 | 50.3 | 0.5 | 108 | 0.35 | 0.42 | 0.42 | 3 | 0.5 | F |
| 칠레 | 35 | 0.63 | 74.8 | 0.53 | 83.1 | 0.83 | 253 | 0.83 | 0.33 | 0.33 | 5 | 0.83 | F |
| 브라 | 23 | 0.41 | 69.7 | 0.5 | 55.2 | 0.55 | 133 | 0.44 | 2.93 | 1 | 10 | 1 | F |
| 오지 | 28 | 0.5 | 50.7 | 0.36 | 22.4 | 0.22 | 365 | 1 | 0.8 | 0.8 | 3 | 0.5 | F |
| 브루 | 57 | 1 | | | | | 37 | 0.12 | 0.03 | 0.03 | 0 | 0 | F |

| | | | | | | | | | | | | | |
|----|----|------|------|------|------|------|-----|------|------|------|----|------|---|
| 아슬 | 24 | 0.43 | 73.3 | 0.52 | 42.1 | 0.42 | 44 | 0.14 | 0.03 | 0.03 | 0 | 0 | F |
| 룩셈 | 12 | 0.21 | 61.1 | 0.44 | 43 | 0.43 | 68 | 0.22 | 0.08 | 0.08 | 1 | 0.17 | F |
| 그리 | 16 | 0.29 | 64.4 | 0.46 | 0 | | 277 | 0.91 | 0.64 | 0.64 | 2 | 0.33 | F |
| 덴마 | 22 | 0.39 | 39.5 | 0.28 | 2.3 | 0.02 | 213 | 0.7 | 0.68 | 0.69 | 0 | 0 | F |
| 핀란 | 28 | 0.5 | 66.5 | 0.47 | 0.8 | 0.08 | 469 | 1 | 0.52 | 0.52 | 2 | 0.33 | F |
| 네덜 | 21 | 0.36 | 52.7 | 0.38 | 34.4 | 0.34 | 419 | 1 | 1.65 | 1 | 5 | 0.83 | F |
| 스웨 | 26 | 0.46 | 44.4 | 0.32 | 14.9 | 0.15 | 285 | 0.93 | 0.96 | 0.97 | 3 | 0.5 | F |
| 폴란 | 33 | 0.59 | 75.5 | 0.54 | 46.5 | 0.46 | 228 | 0.75 | 0.92 | 0.93 | 5 | 0.83 | F |
| 헝가 | 31 | 0.55 | 78.7 | 0.56 | 26.7 | 0.27 | 111 | 0.36 | 0.27 | 0.27 | 2 | 0.33 | F |
| 호주 | 27 | 0.48 | 63.2 | 0.45 | 62 | 0.62 | 164 | 0.54 | 2.07 | 1 | 5 | 0.83 | F |
| 캐나 | | | 80 | 0.57 | 50.4 | 0.5 | 298 | 0.97 | 2.98 | 1 | 6 | 1 | F |
| 슬베 | 33 | 0.59 | 58.6 | 0.42 | 0 | | 108 | 0.35 | 0.1 | 0.1 | 1 | 0.17 | E |
| 이태 | 24 | 0.43 | 55.8 | 0.4 | 22.1 | 0.22 | 209 | 0.68 | 4.45 | 1 | 0 | 0 | E |
| 스페 | 22 | 0.39 | 58.3 | 0.42 | 41.1 | 0.41 | 218 | 0.71 | 2.97 | 1 | 0 | 0 | E |
| 포르 | 22 | 0.39 | 60.5 | 0.43 | 24.8 | 0.25 | 66 | 0.26 | 0.47 | 0.47 | 3 | 0.5 | E |
| 벨기 | 22 | 0.39 | 44.2 | 0.32 | 11 | 0.11 | 391 | 1 | 1.0 | 1 | 5 | 0.83 | E |
| 터키 | 27 | 0.48 | 75.2 | 0.54 | 55.6 | 0.55 | 121 | 0.4 | 1.33 | 1 | 4 | 0.67 | E |
| 스위 | 26 | 0.46 | 70 | 0.5 | 46.3 | 0.46 | 142 | 0.46 | 1.05 | 1 | 0 | 0 | E |
| 대만 | | | 76.1 | 0.54 | 44.7 | 0.44 | 111 | 0.36 | | | | | E |
| 슬박 | 36 | 0.64 | 80.1 | 0.57 | 49.5 | 0.49 | 107 | 0.35 | 0.17 | 0.17 | 1 | 0.17 | E |
| 인니 | 44 | 0.79 | 83.4 | 0.60 | 89 | 0.88 | 177 | 0.58 | 0.35 | 0.35 | 3 | 0.5 | D |
| 페루 | 37 | 0.66 | 78.5 | 0.56 | 86.1 | 0.86 | 132 | 0.43 | 0.12 | 0.12 | 4 | 0.67 | D |
| 미국 | 11 | 0.2 | 65.6 | 0.47 | 54.7 | 0.54 | 248 | 0.81 | 22 | 1 | 상 | | D |
| 코스 | 25 | 0.45 | 79.4 | 0.57 | 88.7 | 0.88 | 113 | 0.37 | 0.04 | 0.04 | 3 | 0.5 | D |
| 인도 | 30 | 0.54 | 77.1 | 0.55 | 78.1 | 0.78 | 198 | 0.65 | 0.67 | 0.68 | 7 | 1 | H |
| 영국 | 11 | 0.2 | 64.9 | 0.46 | 39 | 0.39 | 129 | 0.42 | 5.18 | 1 | 상 | | H |
| 일본 | 26 | 0.46 | 68.5 | 0.49 | 46.2 | 0.46 | 171 | 0.56 | 10.8 | 1 | 10 | 1 | H |
| 노르 | 38 | 0.78 | 53.2 | 0.38 | 41.8 | 0.42 | 255 | 0.83 | 0.85 | 0.86 | 4 | 0.67 | H |

3) 제2차 산업은 주로 공업을 의미하며 단위는 %임.

* 재외공관 수는 각국의 재외공관수로 단위는 개, 분담금은 유엔에 부담하는 회원국 분담금 비율로서 단위는 %,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입 수자를 의미하며 단위는 개 임(“상“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의미하여 이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 한국은 1990년 유엔에 가입하였고 26년이 지난 상황에서 2회 수입하였으므로 이를 유엔 창설시기인 1945년과 비교하여 2배를 추가).

* 과세는 정부가 개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부담 규모를 GDP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단위는 %임.

* 정부지출은 정부의 모든 지출을 GDP로 나누어 나온 비율을 의미하며 단위는 %임.

* 공란은 파악이 안 됨을 의미함.

* 유형별 각 지표에 대한 평균 퍼지점수 도출결과: 산업형(I), 외교형(F), 경제형(E), 독립형(D), 혼합형(H)의 순서

* 제2차 산업비중: 0.5663, 0.4794, 0.4338, 0.525, 0.495/ 과세: 0.5288, 0.4638, 0.46, 0.55, 0.47

* 정부지출: 0.6369, 0.39, 0.3666, 0.79, 0.5125/ * 재외공관수: 0.5319, 0.6012, 0.5056, 0.5475, 0.615 / * 유엔분담금: 0.5588, 0.5859, 0.5718, 0.3775, 0.89 /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입: 0.3255, 0.4988, 0.2925, 0.6675, 0.9175

IV. 연구설계

1. 연구방법: 퍼지셋 분석방법

50개국의 통상교섭 담당조직의 제도적 특징 분석을 위해 퍼지셋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사회과학에서 중범위의 사례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유용하다(최영준, 2009: 314-317). 퍼지셋 이론은 Zadeh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서 Ragin과 Kvist에 의해 구체적으로 발전되었다(Ragin, 2000). 퍼지셋 분석은 0과 1을 이용하여 사회과학의 질적 비교분석에 유용한 불리언 대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이분법적 변수를 극복하고 그 사이에 정도에 따른 수를 넣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질적인 정보를 어느 정도 양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한 방법론이다(Ragin, 2008; 조경훈·박형준, 2015: 40-41). 하나의 유형을 구축할 때 퍼지집합 방법론에서는 유형을 구성하는 다수의 속성에 주목한다. 이 속성들이 모인 속성공간은 유형구축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속성들의 다양한 결합은 제각기 속성공간의 특정 위치를 차지하고 이 위치들이 바로 별개의 유형을 나타낸다(조경훈·박형준, 2015: 40-41). 이 연구에서는 퍼지셋 이념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퍼지집합으로 전환된 이념형 개념에 분석대상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퍼지 소속점수로 나타내는 것이다(김종일, 2010: 261-264). 이념형 분석을 추진한 후 각 이념형의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다. 이념형 유형은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조직이 산업, 외교, 경제에 대해 두는 비중을 기초로 하여 통상조직의 유형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속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유형을 설명할 정치제도,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에 대한 지표를 설정해서 퍼지점수를 부여하였다. 제도적 지표가 점수로 이미 제시된 경우 이 점수를 활용하였고, 점수화하기 어려운 양적이고 추상적인 것일 경우 이에 맞는 퍼지점수를 부여하였다.

2. 분석 지표선정과 대상국가 선정

각국의 통상교섭 조직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정치제도,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의 발전 정도를 통해 조직의 상이한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제도는 각각의 유형을 설명하는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형을 일반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경제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12개의 지표를 제시했는데, 통상교섭이 경제와

관련성이 가장 높고 이를 통한 설명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제도로써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제도를 유지하는지, 의회의 역할이 강한지를 파악하고, 민주주의 발전 정도도 살펴보았다. 경제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경제분야, 무역분야와 산업투자분야로 나누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GDP 규모, 1인당 GDP 규모, GDP 성장률과 경제자유도가 각국의 경제현황을 잘 설명할 것으로 보았다. 무역규모, 무역의존도, FTA 협정건수와 WTO 분쟁건수가 국가의 무역활동이 활발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보았다. 제2,3차 산업비중, 제1차 산업비중, 자연자원 비중과 투자보장 협정건수를 통해 산업비중과 투자비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상교섭 조직유형을 인구규모, 경쟁력지수와 영업환경지수와 같은 사회제도 지표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50개국은 OECD 회원국(34개국)과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세계경제에서 비중이 큰 국가를 선정하였다. OECD 회원국이 주로 유럽국가이고 선진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국가를 포함한다는 차원에서다. EU 회원국의 경우 정확한 분석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개별 회원국의 통상교섭 담당 조직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그러지 않으면 독립형의 비중이 과도해 질 것을 우려한 결과다.⁴⁾ 이를 통해 해당유형에 소속되는 국가는 아래와 같이 산업형(16개국), 외교형(17개국), 경제형(9개국), 독립형(4개국), 혼합형(4개국)으로 나타났다.⁵⁾

〈표 4〉 외국의 통상교섭 담당 부처

| 부처유형 | 해당 국가 |
|-------------|---|
| 산업형 (16) | 중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한국, 필리핀, 콜롬비아, 이스라엘, 남아공, 체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 외교형 (17)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칠레, 브라질, 오스트리아, 브루나이,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
| 경제형 (9) | 대만,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터키, 스위스 |
| 독립형 (4) | 미국,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페루 |
| 혼합형 (4) | 일본, 노르웨이, 인도, 영국 |

4) EU 회원국 28개국중 OECD 회원국인 20개국이 금번 연구의 분석대상이다.

5) 각국의 통상교섭 담당조직은 대상국 정부소개 웹사이트와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해당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2015.12월 케냐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개막식 연설자 소속 부처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3. 자료 수집

이념형으로서 통상교섭 조직유형을 설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산업형은 산업을 중시하며 산업진흥 정책을 수행하면서 통상교섭을 추진하는 유형이다. 이를 설명하는 50개국의 제2차 산업 통계는 외교부의 국가별 개황자료에서 파악했다. 경제형을 설명하는 정부지출과 세금부과는 헤리티지재단 자료에서 확인하였다. 외교형을 설명하는 재외공관 유지현황은 각국 재외공관현황 웹사이트에서 파악했다. 유엔분담금 비율현황과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입 현황은 외교부 발행 2015년 유엔개황자료에서 파악했다. 제도적 특징을 파악할 지표로서는 정치제도, 경제제도와 사회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상 국가의 인구, 정부형태, GDP 규모, 1인당 GDP 규모와 교역규모 통계는 외교부 웹사이트의 각 국가별 개황자료를 통해 파악했다. GDP 성장률은 세계은행을 통해 확인했다. 민주주의 발전정도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매년 발간하는 Democracy Index를 통해 작성했고, 무역의존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탈에서 정리한 각국의 무역의존도 통계를 활용했다. FTA 체결현황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웹사이트의 FTA 체결현황 자료를 활용했으며,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탈 자료를 통해 보완했다. 경제자유도는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187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수를 통해, WTO 분쟁건수는 WTO 웹사이트를 통해 파악했다. 자연자원 규모는 자연자원의 GDP 대비 비율을 의미하며 세계은행(WB) 자료에서 확인했다. 각국의 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은 세계은행의 양자 간 투자협정 체결현황 자료에서 파악했다.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간하는 경쟁력보고서를 활용했고, 영업환경지수(Ease of Doing Business index)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영업환경보고서를 통해 작성했다. 경쟁력지수는 140개국, 영업환경지수는 18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각국의 제1,2,3차 산업구조 통계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기초로 하여 KOTRA가 작성한 자료를 활용했다. 상기 자료 이외에도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과 OECD의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통계자료는 대부분이 2015년도 자료이며, 아주 일부의 경우 2014년도와 2016년도 통계도 활용했는데 자료출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자료출처

| 구분 | 유형 | 측정지표 | 구체지표 | 자료출처 | | |
|-----------|-------------------------|----------------------|----------------------------|---------------------------------|----------------------|--------------|
| 이념형 | 산업형, 외교형, 경제형, 독립형, 혼합형 | 산업비중 | 제2차 산업 비중 | 외교부 국별 개황, 세계은행 | | |
| | | 외교비중 | 재외공관수 유엔분담금, 안보리 비상임 | 재외공관 사이트, 유엔개황, 외교부 국별 개황 | | |
| | | 경제비중 | 정부지출, 세금부과 | 헤리티지재단 | | |
| 제도적 특징 | 정치제도 | 정부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 1인 권한집중도 | 외교부 국별 개황 | | |
| | | | 의회 역할정도 | | | |
| | | 민주주의 발전정도 | 민주주의 지표 | EIU 지수 | | |
| | 경제 제도 | 경제 | 경제규모 | GDP 규모 | 외교부 국별 개황 | |
| | | | | 1인당 GDP 규모 | 외교부 국별 개황 | |
| | | | | GDP 성장률 | 세계은행 | |
| | | | 경제개방 | 경제자유도 | 헤리티지재단 | |
| | | | | 무역비중 | 무역의존도 | KOTRA |
| | | | | | 교역규모 | 외교부 국별 개황 |
| | | 무역 | 무역자유화 | FTA 체결건수 | 산업부 FTA 현황, KOTRA | |
| | | | | WTO 분쟁건수 | WTO | |
| | | | | 제2,3차 산업비중 | KOTRA | |
| | | | 제1차 산업비중 | | | |
| | | | 산업 투자 | 산업구조 | 자연자원비중 | 세계은행 |
| | | | | | 투자비중 | 투자보장협정 체결 규모 |
| | 사회제도 | 인구 | | 인구규모 | 외교부 국별 개황 | |
| | | 경쟁력지수 | 경쟁력지수 | WEF 보고서 | | |
| | | 영업환경지수 | 영업환경지수 | WB 보고서 | | |

4. 퍼지셋점수 도출

퍼지셋점수는 평균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중위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각 국가의 점수를 중위점으로 나누고 이를 절반으로 해서 각각의 퍼지셋점수를 도출하였다. 제도변수 중 정치제도로써 정부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권한집중도의 경우 권한의 정도를 통해 점수를 도출했다.⁶⁾ 의회역할 비중의 경우 역할의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도출했다.⁷⁾ 민주주의 발전정도는 EIU(Economist

6) 대통령제 채택 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므로 1점, 의원집중제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권한이 균등하게 배분되므로 0.5점, 의원내각제의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Intelligence Unit)에서 분류한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경제제도를 파악하는 GDP 규모, 1인당 GDP 규모, GDP 성장률, 경제자유도, 교역규모, 무역의존도, FTA 체결건수(체결건수와 협상중인 건수를 모두 포함), WTO 분쟁건수와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 수는 자료출처에서 파악한 숫자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자원보유의 비중은 전체 규모를 통해 파악하는 경우 단순히 자원이 많은 국가가 높은 점수를 받으므로, GDP에서 차지하는 자연자원의 비중(total natural resources rents(%) of GDP)으로 보았다. 산업구조는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을 더한 것으로 점수를 도출했다. 제1차 산업 비중도 파악하였다. 사회제도를 설명하는 인구규모, 경쟁력지수, 영업환경지수는 그대로의 수치를 활용했다. 제도별 전체 퍼지셋점수는 <표 6>과 같다.

<표 6> 제도별 퍼지셋 점수⁸⁾

| 국가 | 제도 | | | | | | | | | | | | | | | | | | | 조직 유형 |
|-----|------|------|------|------|------|------|------|------|------|------|------|--------|------|------|------|------|------|-------|---|----------|
| | 정치제도 | | | 경제제도 | | | | | | | | | | | | | 사회제도 | | | |
| | | | | 경제분야 | | | | 무역분야 | | | | 투자산업분야 | | | | | | | | |
| PI | PM | D | G | 1G | GG | EF | T | TG | F | WC | I | A | NR | IT | PL | C | DB | IFEDH | | |
| 중국 | 1 | 0 | 0.19 | 1 | 0.12 | 1 | 0.37 | 1 | 0.38 | 0.32 | 1 | 0.47 | 1 | 1 | 1 | 1 | 0.51 | 0 | I | |
| 독일 | 0 | 1 | 0.55 | 1 | 0.7 | 0.33 | 0.53 | 1 | 0.66 | 0.67 | 0.44 | 0.51 | 0.13 | 0.1 | 1 | 1 | 0.93 | 0.78 | I | |
| 프랑 | 0.5 | 0.75 | 0.51 | 1 | 0.86 | 0.04 | 0.45 | 1 | 0.48 | 0.67 | 0.56 | 0.51 | 0.31 | 0.05 | 1 | 1 | 0.62 | 0.6 | I | |
| 러시 | 1 | 0.25 | 0.22 | 1 | 0.13 | 0.13 | 0.36 | 0.85 | 0.4 | 0.05 | 0.56 | 0.5 | 0.78 | 1 | 0.6 | 1 | 0.22 | 0.24 | I | |
| 아르 | 1 | 0.5 | 0.49 | 0.52 | 0.2 | 0.1 | 0.31 | 0.21 | 0.24 | 0.23 | 1 | 0.47 | 1 | 1 | 0.55 | 0.71 | 0 | 0 | I | |
| 멕시코 | 1 | 0.5 | 0.43 | 1 | 0.17 | 0.46 | 0.47 | 1 | 0.5 | 0.36 | 1 | 0.5 | 0.61 | 1 | 0.3 | 1 | 0.02 | 0.43 | I | |
| 한국 | 1 | 0.75 | 0.52 | 1 | 0.44 | 0.69 | 0.51 | 1 | 0.82 | 0.35 | 1 | 0.51 | 0.43 | 0.02 | 0.82 | 0.86 | 0.55 | 0.94 | I | |
| 필리 | 1 | 0.5 | 0.44 | 0.27 | 0.04 | 1 | 0.45 | 0.19 | 0.42 | 0.08 | 0.61 | 0.46 | 1 | 1 | 0.34 | 1 | 0.19 | 0 | I | |
| 콜롬 | 1 | 0.5 | 0.42 | 0.37 | 0.12 | 0.96 | 0.51 | 0.18 | 0.3 | 0.29 | 0.56 | 0.49 | 1 | 1 | 0.16 | 0.8 | 0 | 0.19 | I | |
| 이스 | 0 | 1 | 0.49 | 0.29 | 0.56 | 0.54 | 0.51 | 0.28 | 0.5 | | 0 | | | 0.2 | 0.42 | 0.14 | 0.53 | 0.21 | I | |
| 남아 | 1 | 0.5 | 0.5 | 0.33 | 0.1 | 0.31 | 0.44 | 0.28 | 0.51 | 0.11 | 0.28 | 0.5 | 0.46 | 1 | 0.47 | 0.81 | 0.15 | 0 | I | |
| 체코 | 0 | 1 | 0.51 | 0.2 | 0.3 | 0.42 | 0.52 | 0.43 | 1 | 0.67 | 0.5 | 0.5 | 0.5 | 0.2 | 1 | 0.19 | 0.46 | 0.46 | I | |
| 말레 | 0 | 1 | 0.42 | 0.3 | 0.16 | 1 | 0.51 | 0.74 | 1 | 0.2 | 0.11 | 0.47 | 1 | 1 | 0.64 | 0.48 | 0.69 | 0.73 | I | |
| 싱가 | 0 | 1 | 0.38 | 0.29 | 0.86 | 0.6 | 0.63 | 1 | 1 | 0.38 | 0.06 | 0.52 | 0 | 0 | 0.4 | 0.09 | 0.97 | 0.98 | I | |
| 베트 | 1 | 0.25 | 0.22 | 0.17 | 0.03 | 1 | 0.39 | 0.47 | 1 | 0.15 | 0.17 | 0.42 | 1 | 1 | 0.5 | 1 | 0.03 | 0 | I | |
| 태국 | 1 | 0.5 | 0.19 | 0.38 | 0.09 | 0.19 | 0.46 | 0.65 | 1 | 0.18 | 0.89 | 0.46 | 1 | 1 | 0.42 | 1 | 0.45 | 0.27 | I | |
| 뉴질 | 0 | 1 | 0.6 | 0.18 | 0.64 | 0.63 | 0.58 | 0.12 | 0.44 | 0.23 | 0.5 | 0.48 | 1 | 0.95 | 0.04 | 0.09 | 0.72 | 0.97 | F | |
| 아일 | 0 | 1 | 0.56 | 0.24 | 0.83 | 1 | 0.55 | 0.27 | 1 | 0.67 | 0.5 | 0.51 | 0.3 | 0.05 | 0.01 | 0.09 | 0.59 | 0.75 | F | |

7)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회가 전적으로 권한을 보유하므로 1점, 의원집중제의 경우 의회의 역할이 상당하므로 0.75점을 부여하였다. 대통령제의 경우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0.75점, 0.5점 또는 0.25점 중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점수를 나누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의회가 실제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IU의 민주주의 지표 점수가 8.01점 이상인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이므로 0.75점, 8점-4.01점 사이는 0.5점, 4.0점 이하의 경우에는 0.25점을 부여하였다. 사회주의 정부체제의 경우 의회와 유사한 기관이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고 0점을 부여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칠레 | 1 | 0.5 | 0.5 | 0.25 | 0.23 | 0.4 | 0.55 | 0.22 | 0.51 | 0.36 | 1 | 0.5 | 0.61 | 1 | 0.52 | 0.29 | 0.4 | 0.28 | F |
| 브라 | 1 | 0.5 | 0.47 | 1 | 0.17 | 0.02 | 0.4 | 0.66 | 0.22 | 0.23 | 1 | 0.49 | 1 | 1 | 0.13 | 1 | 0 | 0 | F |
| 오지 | 0 | 1 | 0.55 | 0.43 | 0.72 | 0.08 | 0.51 | 0.49 | 0.81 | 0.67 | 0.33 | 0.51 | 0.3 | 0.2 | 0.65 | 0.14 | 0.6 | 0.69 | F |
| 브루 | 1 | 0.25 | | 0.02 | 0.64 | 0 | 0.48 | 0 | | | 0 | 0.51 | 0.13 | 1 | 0.04 | 0.02 | | 0 | F |
| 아슬 | 0 | 1 | 0.62 | 0.02 | 0.81 | 0.38 | 0.52 | 0.02 | 0.75 | 0.5 | 0 | 0.48 | 1 | 0 | 0.08 | 0.02 | 0.5 | 0.72 | F |
| 룩셈 | 0 | 1 | 0.56 | 0.06 | 1 | 0.85 | 0.53 | 0.01 | 1 | 0.67 | 0.33 | 0.52 | 0.06 | 0.05 | 1 | 0.02 | 0.65 | 0.09 | F |
| 그리 | 0 | 1 | 0.48 | 0.27 | 0.41 | 0.15 | 0.38 | 0.02 | 0.44 | 0.67 | 0.5 | 0.5 | 0.7 | 0.1 | 0.42 | 0.19 | 0 | 0.1 | F |
| 덴마 | 0 | 1 | 0.58 | 0.33 | 0.7 | 0.23 | 0.54 | 0.34 | 0.79 | 0.67 | 0.44 | 0.51 | 0.3 | 0.85 | 0.5 | 0.1 | 0.79 | 0.95 | F |
| 핀란 | 0.5 | 0.75 | 0.58 | 0.26 | 0.63 | 0 | 0.52 | 0.22 | 0.61 | 0.67 | 0.33 | 0.5 | 0.33 | 0.65 | 0.73 | 0.09 | 0.86 | 0.85 | F |
| 네덜 | 0 | 1 | 0.57 | 0.69 | 0.66 | 0.21 | 0.53 | 1 | 1 | 0.67 | 0.5 | 0.51 | 0.26 | 0.5 | 1 | 0.22 | 0.91 | 0.58 | F |
| 스웨 | 0 | 1 | 0.62 | 0.55 | 0.72 | 0.48 | 0.51 | 0.47 | 0.63 | 0.67 | 0.39 | 0.51 | 0.3 | 0.55 | 0.69 | 0.15 | 0.84 | 0.88 | F |
| 폴란 | 0 | 1 | 0.48 | 0.53 | 0.39 | 0.69 | 0.5 | 0.62 | 0.72 | 0.67 | 0.56 | 0.5 | 0.63 | 0.7 | 0.64 | 0.66 | 0.29 | 0.63 | F |
| 헝가 | 0 | 1 | 0.44 | 0.14 | 0.22 | 0.77 | 0.47 | 0.35 | 1 | 0.67 | 0.72 | 0.49 | 0.83 | 0.3 | 0.57 | 0.17 | 0 | 0.37 | F |
| 호주 | 0 | 1 | 0.58 | 1 | 1 | 0.52 | 0.57 | 0.75 | 0.31 | 0.24 | 1 | 0.51 | 0.44 | 1 | 0.21 | 0.4 | 0.64 | 0.81 | F |
| 캐나 | 0 | 1 | 0.58 | 1 | 0.8 | 0.5 | 0.56 | 1 | 0.48 | 0.33 | 1 | | | 1 | 0.3 | 0.59 | 0.78 | 0.79 | F |
| 슬베 | 0.5 | 0.75 | 0.49 | 0.49 | 0.47 | 0.63 | 0.43 | 0.09 | 1 | 0.67 | 0.33 | 0.51 | 0.41 | 0.15 | 0.4 | 0.03 | 0 | 0.27 | E |
| 이태 | 0 | 1 | 0.49 | 1 | 0.55 | 0 | 0.44 | 1 | 0.43 | 0.67 | 0.39 | 0.51 | 0.41 | 0.1 | 0.94 | 1 | 0.26 | 0.33 | E |
| 스페 | 0 | 1 | 0.52 | 1 | 0.53 | 0.29 | 0.49 | 0.99 | 0.49 | 0.67 | 0.5 | 0.5 | 0.46 | 0.05 | 0.75 | 0.81 | 0.43 | 0.51 | E |
| 포르 | 0.5 | 0.75 | 0.5 | 0.22 | 0.34 | 0.19 | 0.47 | 0.21 | 0.61 | 0.67 | 0.39 | 0.51 | 0.43 | 0.25 | 0.51 | 0.19 | 0.34 | 0.66 | E |
| 벨기 | 0 | 1 | 0.51 | 0.52 | 0.75 | 0.27 | 0.49 | 1 | 1 | 0.67 | 0.5 | 0.51 | 0.13 | 0.05 | 0.94 | 0.10 | 0.67 | 0.36 | E |
| 터키 | 0 | 1 | 0.33 | 0.78 | 0.3 | 0.54 | 0.44 | 0.59 | 0.45 | 0.67 | 0.61 | 0.47 | 1 | 0.3 | 0.88 | 1 | 0.12 | 0.18 | E |
| 스위 | 0.5 | 0.75 | 0.58 | 0.69 | 0.91 | 0.4 | 0.58 | 0.88 | 0.93 | 0.5 | 0.22 | 0.51 | 0.15 | 0.02 | 1 | 0.14 | 1 | 0.61 | E |
| 대만 | 1 | 0.5 | 0.49 | 0.52 | 0.36 | | 0.53 | 0.87 | | 0.15 | 0.33 | | | | 0.19 | 0.39 | 0.74 | 0.84 | E |
| 슬박 | 0 | 1 | 0.47 | 0.1 | 0.44 | 0.52 | 0.48 | 0.27 | 1 | 0.67 | 0.5 | 0.5 | 0.81 | 0.25 | 0.55 | 0.09 | 0 | 0.57 | E |
| 인니 | 1 | 0.5 | 0.45 | 0.86 | 0.06 | 1 | 0.42 | 0.52 | 0.38 | 0.14 | 1 | 0.45 | 1 | 1 | 0.22 | 1 | 0.43 | 0 | D |
| 페루 | 1 | 0.5 | 0.42 | 0.2 | 0.1 | 0.5 | 0.48 | 0.12 | 0.38 | 0.35 | 0.44 | 0.48 | 1 | 1 | 0.08 | 0.53 | 0 | 0.25 | D |
| 미국 | 1 | 0.75 | 0.52 | 1 | 0.86 | 0.5 | 0.54 | 1 | 0.23 | 0.35 | 1 | 0.51 | 0.3 | 0.65 | 1 | 1 | 0.95 | 0.89 | D |
| 코스 | 1 | 0.75 | 0.51 | 0.05 | 0.17 | 0.73 | 0.48 | 0.04 | | | 0 | 0.49 | 1 | 0.5 | 0.19 | 0.85 | 0.1 | 0.13 | D |
| 인도 | 0 | 1 | 0.51 | 1 | 0.03 | 1 | 0.4 | 1 | 0.43 | 0.29 | 1 | 0.42 | 1 | 1 | 0.8 | 1 | 0.05 | 0 | H |
| 영국 | 0 | 1 | 0.53 | 1 | 0.72 | 0.6 | 0.55 | 1 | 0.47 | 0.67 | 0.5 | 0.51 | 0.13 | 0.5 | 1 | 1 | 0.83 | 0.91 | H |
| 일본 | 0 | 1 | 0.52 | 1 | 0.56 | 0 | 0.52 | 1 | 0.28 | 0.36 | 1 | 0.51 | 0.22 | 0.02 | 0.22 | 1 | 0.9 | 0.49 | H |
| 노르 | 0 | 1 | 0.64 | 0.5 | 1 | 0.46 | 0.51 | 0.34 | 0.52 | 0.5 | 0.22 | 0.51 | 0.31 | 1 | 0.17 | 0.09 | 0.81 | 0.87 | H |

8) * PI(대통령제)는 대통령에 대한 권한집중도, PM(의원내각제)은 의회역할 정도, D는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의미함.

* G는 GDP 규모, 1G는 1인당 GDP 규모, GG는 경제성장율(GDP 성장률), EF는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로서 경제 개방정도를 의미, T는 교역규모, TG는 무역의존도, F는 FTA 체결건수(협상건수 포함), WC는 WTO에서의 분쟁건수로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분쟁해결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숫자를 의미(EU의 경우 어느 회원국과 관련된 분쟁인지 파악되지 않아서 분쟁숫자를 28개 회원국으로 나누어서 각각 6건을 회원국별로 계산), I는 제2차와 제3차 산업을 합한 비중을 의미함.

* A는 제1차 산업 비중, NR는 자연자원의 GDP 대비비중, IT는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 건수를 의미함.

* PL은 인구규모, C는 경쟁력지수, DB는 영업환경지수를 의미함.

* 공란은 파악이 안 됨을 의미함.

* 유형 약어설명: 산업형: I, 외교형: F, 경제형: E, 독립형: D, 혼합형: H.

V. 분석결과

〈표 7〉은 산업형, 외교형, 경제형, 독립형, 혼합형의 유형에 속한 국가의 정치제도,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적 특징과 그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유형별 제도적 특징

| 제도 | | 지표 | 순위 |
|------|------|-------------|-----------|
| 정치제도 | | 1인 권한집중 | D I E F H |
| | | 의회역할정도 | H F E I D |
| | | 민주주의 발전 | H F E D I |
| 경제제도 | 경제 | GDP 규모 | H F E I D |
| | | 1인당 GDP 규모 | F H E I D |
| | | GDP 성장률 | D I H F E |
| | | 경제자유도 | F H E D I |
| | 무역 | 무역규모 | H E I D F |
| | | 무역의존도 | F E I H D |
| | | FTA 체결건수 | E F H I D |
| | | WTO 분쟁건수 | H D I F E |
| | 산업투자 | 제2,3차 산업 비중 | E F I D H |
| | | 제1차 산업 비중 | D I F E H |
| | | 자연자원 규모 | D H I F E |
| | | 양자투자협정 | E I H F D |
| 사회제도 | | 인구 | H I D E F |
| | | 경쟁력지수 | H F E I D |
| | | 영업환경지수 | H F E I D |

* 순위의 영문은 왼쪽이 높은 순위를 의미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은 순위를 의미함.

* 순위 결과는 18개 지표의 각 유형의 퍼지점수의 합을 구하여 평균한 것을 의미함.

1. 제도별 해석

정치제도의 대통령에 대한 권한집중의 강한 정도로는 독립형, 산업형, 경제형, 외교형과 혼합형의 순서다. 대통령제와 같은 권한이 집중된 정부제도를 유지할수록 공격적인 통상교섭을 추진하고, 산업진흥을 위한 통상교섭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형 국가가 대통령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산업 진흥을 위해 강력한 정부제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의회역할 정도로는 혼합형, 외교형, 경제형, 산업형과 독립형의 순서다. 민주주의 발전 정도로는 혼합형, 외교형, 경제형, 독립형과 산업형의 순서

를 보여준다. 경제제도 중 GDP 규모로는 혼합형, 외교형, 경제형, 산업형과 독립형의 순서다. 1인당 GDP 규모로는 외교형, 혼합형, 경제형, 산업형과 독립형의 순서를 보인다. 외교형과 혼합형 소속국가들이 선진국이고, 산업형과 독립형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제성장률로는 독립형, 산업형, 혼합형, 외교형과 경제형의 순서다. 대체로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차원에서 산업형이 이러한 특징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형의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으며, 혼합형, 경제형, 독립형과 산업형의 순서다. 외교형의 경제제도가 개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제도 중에서 무역과 관련되는 지표다. 무역규모로는 혼합형, 경제형, 산업형, 독립형과 외교형의 순서이다. 혼합형과 경제형의 교역활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무역의존도의 경우 외교형, 경제형, 산업형, 혼합형과 독립형의 순서다. 외교형과 경제형이 무역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형의 FTA 체결건수가 가장 많으며, 외교형, 혼합형, 산업형과 독립형의 순서다. FTA는 상대방 국가의 시장을 개방하고 자국의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경제형 국가와 외교형 국가가 시장개방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혼합형의 WTO 분쟁건수가 가장 많으며, 독립형, 산업형, 외교형과 경제형의 순서다. 혼합형과 독립형이 WTO 분쟁절차를 많이 활용함을 알 수 있다. 경제제도 중에서 산업과 투자와 관련된 지표이다. 산업구조로서 제2,3차 산업의 비중으로는 경제형이 가장 높으며, 외교형, 산업형, 독립형과 혼합형 순서다(독립형과 혼합형은 동일). 경제형과 외교형이 제2,3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산업형은 중간 수준임을 보여준다. 제1차 산업의 비중과 관련해서는 독립형이 가장 높으며, 산업형, 외교형, 경제형과 혼합형의 순서다. 독립형과 산업형의 제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경제형이 낮은 편이다. 자연자원의 규모는 독립형이 가장 높으며, 혼합형, 산업형, 외교형과 경제형의 순서다. 독립형과 혼합형의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외교형 보다는 산업형이 자연자원에 더욱 의존함을 알 수 있다. 경제형의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 건수가 가장 많으며, 산업형, 혼합형, 외교형과 독립형의 순서다. 경제형과 산업형이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제도 중 인구규모는 혼합형이 가장 크며, 산업형, 독립형, 경제형과 외교형의 순서다. 경쟁력지수의 경우 혼합형이 가장 높으며, 외교형, 경제형, 산업형과 독립형의 순서다. 혼합형의 영업환경지수가 가장 높고, 외교형, 경제형, 산업형과 독립형의 순서다. 경쟁력 및 영업환경에 있어서 혼합형과 외교형이 선진적인 제도를, 산업형과 독립형이 낮은 수준의 제도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각 유형별 제도적 특징을 표8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산업형의

경우 정치제도에 있어서 대통령제 중심적이고 민주주의 발전정도는 아주 낮다.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에 있어서 경제성장률과 인구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개도국의 모습을 보였다. 외교형은 정치제도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높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특징을 보였다.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중견 이상 선진국의 모습을 보였다. 경제형은 정치제도에 있어서 중간 수준의 모습을 보이나,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에 있어서는 중견 이상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독립형은 정치제도에 있어서 대통령제 중심적이고 민주주의는 중간적인 발전 수준을 보였다.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에 있어서는 개도국의 특징을 보였다. 혼합형은 정치제도, 경제제도와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선진국의 모습을 보였다. 정치제도에 있어서 혼합형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자연자원과 인구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

〈표 8〉 유형별 제도적 특징 비교

| 제도 | 지표 | 유형별 순위 | | | | | |
|------|---------|-------------|-----|-----|-----|-----|----|
| | | 산업형 | 외교형 | 경제형 | 독립형 | 혼합형 | |
| 정치제도 | 1인 권한집중 | H | L | M | VH | VL | |
| | 의회역할정도 | L | H | M | VL | VH | |
| | 민주주의 발전 | VL | H | L | 중 | VH | |
| 경제제도 | 경제 | GDP 규모 | L | H | M | VL | VH |
| | | 1인당 GDP 규모 | L | VH | M | VL | H |
| | | GDP 성장률 | H | L | VL | VH | M |
| | | 경제자유도 | VL | VH | M | L | H |
| | 무역 | 무역규모 | L | VL | H | L | VH |
| | | 무역의존도 | M | VH | H | VL | L |
| | | FTA 체결건수 | L | H | VH | VL | M |
| | | WTO 분쟁건수 | M | L | VL | H | VH |
| | 산업투자 | 제2,3차 산업 비중 | M | H | VH | L | L |
| | | 제1차 산업 비중 | H | M | L | VH | VL |
| | | 자연자원 규모 | M | L | VL | VH | H |
| | | 양자투자협정 | H | L | VH | VL | M |
| 사회제도 | 인구 | H | VL | L | M | VH | |
| | 경쟁력지수 | L | H | M | VL | VH | |
| | 영업환경지수 | L | H | M | VL | VH | |

* 아주 높음(VH), 높음(H), 중간(M) 낮음(L) 아주 낮음(VL)

2. 유형적합도 분석

유형적합도는 유형에 속한 국가들이 해당 유형의 특징을 공유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평가다. 산업형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유형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18개 지표

상 가장 가까운 유형을 찾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유형도 확인하였다. 비교코자 하는 유형의 점수는 해당 유형에 포함된 국가군의 퍼지셋 점수를 평균하여 도출된 것을 활용하였다. 표9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유형적합도는 매우 낮았다. 18개 지표 중에서 산업형의 특징은 1개(FTA 체결수)만 공유했으며, 많이 공유한 유형으로는 혼합형(8개 지표), 경제형(4), 외교형(3)과 독립형(2)의 순서였다. 제도별로 살펴보면 정치제도는 혼합형(2개 지표), 독립형(1)의 순서로 그 특징을 공유하였고, 경제제도는 혼합형(4개 지표), 경제형(4), 외교형(2), 독립형과 산업형(각각 1)의 순서로 특징을 공유했다. 사회제도는 혼합형(2개 지표)과 외교형(1)의 순서로 특징을 공유했다. 차 순위까지 포함하는 경우, 18개 지표 중에서 산업형의 특징을 보이는 지표는 5개 추가되었고(36개 중 6개가 산업형 특성에 일치), 외교형 지표는 7개 추가되었으며, 혼합형(3), 경제형(2), 독립형(1)의 순서로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차 순위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혼합형(11), 외교형(10), 경제형(6), 산업형(6), 독립형(3)의 순서로 적합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산업형 지표 숫자를 비율로 환산하면 5.6%였으며, 차 순위까지 포함하는 경우 16.7%로서 유형적합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우리나라의 유형적합도

| 제도 | 지표 | 퍼지점수 | 적합유형(최선/차선) | |
|------|---------|-------------|-------------|-----|
| 정치제도 | 1인 권한집중 | 1 | D I | |
| | 의회역할정도 | 0.75 | H F | |
| | 민주주의 발전 | 0.52 | H F | |
| 경제제도 | 경제 | GDP 규모 | 1 | H F |
| | | 1인당 GDP 규모 | 0.44 | E I |
| | | GDP 성장률 | 0.69 | D I |
| | | 경제자유도 | 0.51 | F H |
| | 무역 | 무역규모 | 1 | H E |
| | | 무역의존도 | 0.82 | E F |
| | | FTA 체결건수 | 0.35 | I H |
| | | WTO 분쟁건수 | 1 | H D |
| | 산업투자 | 제2,3차 산업 비중 | 0.51 | E F |
| | | 제1차 산업 비중 | 0.43 | H F |
| | | 자연자원 규모 | 0.02 | E F |
| | | 양자투자협정 | 0.82 | E I |
| 사회제도 | 인구 | 0.86 | H I | |
| | 경쟁력지수 | 0.55 | H F | |
| | 영업환경지수 | 0.94 | H F | |

* 적합유형의 영문은 왼쪽이 가장 적합한 유형을 의미하고 오른쪽이 차 순위 적합 유형을 의미함(I: 산업형, F: 외교형, E: 경제형, D: 독립형, H: 혼합형).

다음은 50개 국가의 유형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의 지표 점수와 가장 가까운 유형의 점수와 그 다음으로 가까운 점수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로는 표10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독일, 브라질과 말레이시아 등이 우리나라와 같이 적합도가 아주 낮았으나, 인도네시아와 페루 등은 아주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산업형에 소속된 독일은 외교형에 매우 가까운 특징을 보였고, 외교형의 브라질은 독립형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 사회제도의 발전수준이 통상교섭 조직유형 결정의 유의미한 설명기준이 될 수 있지만 한계도 있음을 확인했다. 통상교섭 조직 결정에는 제도발전 요인 이외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표 10〉 50개국의 유형적합도

| 유형적합도 | 해당국가(최선유형점수비교) | 해당국가(차선유형점수포함비교) |
|-------|---|---|
| 아주 낮음 | 체코(0,0), 브라질(0,0), 한국(1,5.6), 말련(1,5.6), 독일(1,5.6), 아르헨티나(1,5.6), 남아공(1,5.6), 이스라엘(1,7.1) | 독일(3,8.3), 싱가포르(4,1.1), 브라질(4,11.1), 터키(4,11.1), 체코(4,11.1), 이스라엘(4,14.3), 한국(6,16.7), 프랑스(6,16.7), 말레이시아(6,16.7), 미국(6,16.7), 대만(6,21.4) |
| 낮음 | 중국(2,11.2), 필리핀(2,11.2), 콜롬비아(2,11.2), 베트남(2,11.2), 태국(2,11.2), 폴란드(2,11.2), 호주(2,11.2), 캐나다(2,11.2), 미국(2,11.2) | 칠레(7,19.4), 헝가리(7,19.4), 브루나이(7,25.0), 폴란드(9,25.0), 이태리(9,25.0), 슬로바키아(9,25.0), 인도(9,25.0), 캐나다(9,28.1), 남아공(10,27.8), 그리스(10,27.8), 슬로베니아(10,27.8) |
| 중간 | 러시아(3,16.7), 멕시코(3,16.7), 싱가포르(3,16.7), 헝가리(3,16.7), 터키(3,16.7), 대만(3,21.4), 브루나이(3,21.4), 프랑스(4,22.2), 오스트리아(4,22.2), 그리스(4,22.2), 스웨덴(4,22.2), 스위스(4,22.2), 슬로바키아(4,22.2) | 러시아(11,30.6), 아르헨티나(11,30.6), 멕시코(11,30.6), 콜롬비아(11,30.6), 뉴질랜드(11,30.6), 핀란드(11,30.6), 호주(11,30.6), 포르투갈(11,30.6), 스위스(11,30.6) |
| 높음 | 뉴질랜드(5,27.8), 덴마크(5,27.8), 핀란드(5,27.8), 칠레(6,33.3), 룩셈부르크(6,33.3), 포르투갈(6,33.3), 벨기에(6,33.3), 아일랜드(7,38.9), 아이슬란드(7,38.9), 네덜란드(7,38.9), 슬로베니아(7,38.9), 이태리(7,38.9), 인도(7,38.9) | 중국(12,33.3), 베트남(12,33.3), 태국(12,33.3), 스페인(12,33.3), 벨기에(12,33.3), 영국(12,33.3), 일본(12,33.3), 노르웨이(12,33.3), 코스타리카(12,37.5) |
| 아주 높음 | 스페인(8,44.4), 영국(9,50), 일본(9,50), 노르웨이(9,50), 코스타리카(9,56.3), 페루(11,61.1), 인도네시아(12,66.7) | 필리핀(13,36.1), 룩셈부르크(13,36.1), 스웨덴(13,36.1), 아일랜드(14,38.9), 오스트리아(14,38.9), 덴마크(14,38.9), 아이슬란드(15,41.7), 네덜란드(15,41.7), 인도네시아(15,41.7), 페루(16,44.4) |

*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18개 지표 중 소속된 유형에 해당되는 지표의 숫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 숫자는 해당 지표가 전체 18개 지표 중에서 소속된 유형에 해당되는 비율을 의미함. 괄호안의 첫째숫자 단위는 개이고 둘째 숫자 단위는 %임.

VI. 결론

이상에서는 50개국의 통상교섭 담당 부처를 이념형으로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을 제도변수를 통해 분석하고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이념형 유형소속 국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념형으로서 산업형은 제2차 산업이 앞선 국가군이고, 외교형은 외교활동이 활발한 국가군이며, 경제형은 정부지출이 적고 과세율이 낮은 국가군임을 확인했다. 둘째, 유형 소속 국가의 경제제도와 사회제도 선진화 여부에 따라 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교형, 경제형과 혼합형이 대체로 선진화된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산업형과 독립형은 개도국의 모습을 보였다. 정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산업형이 대통령 중심제, 외교형이 의원내각제를 주로 채택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발전정도에 있어서는 혼합형, 외교형과 경제형의 수준이 높았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외국의 통상교섭 조직 유형 설명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경제발전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거나 산업에 대한 비중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3: 7-9;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13: 5-8).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발전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유형별 설명에서 설득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가별 유형적합도 비교다. 50개 대상국가 중에서 독일,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형적합도가 매우 낮았다.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제도 발전정도를 감안할 때, 혼합형이나 외교형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었다.

금번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서 활용한 퍼지셋 분석방법은 질적 비교분석과 이념형 분석으로 나누어지고 상당수 연구가 질적 비교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금번 연구는 이념형 분석방법을 활용했으며, 이념형 분석이 주로 복지국가를 주제로 이루어졌지만 금번 연구를 통해 연구주제를 달리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이념형 도출을 위한 개념화가 용이하지 않음을 인식했다. 정형화된 적용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념화를 위한 변수의 선택과 퍼지점수 부여과정에서 연구자의 경험을 통한 중립적 판단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가의 통상교섭 조직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나,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의 발전정도가 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각국의 유형적합도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많은 검토대상 국가들의 유형적합도가 높았으나, 유형적합도가 아주 낮은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산업형), 독일(산업형)과 브라질(외교형)은 외교형(한국, 독일) 또는 독립형(브라질)의 특징을 많이 보였다. 유형적합도가 낮은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 경제제도와 사회제도 발전기준 이외에도 통상교섭 조직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김기홍. (2012). 한국의 대외통상조직의 변화와 대외협상력: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무역학 회지』, 제37권 제1호: 69-91.
- 김정수. (1998). 한국 통상행정체제의 진단과 개선 방향. 『고대 일민국제관계 연구원 IRI 리뷰』, 봄-여름호 3권1호: 13-68.
- 김종일. (2010). 대륙북지국가의 활성화정책 추이에 관한 퍼지집합 이념형 분석, 2000-2007.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 253-284.
- 김춘순·권기현·이종구. (2015).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을 활용한 의회예산제도 영향요인의 탐색: 주요 60개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9권 제1호: 87-111.
- 문명재. (2008). 정부조직개편의 정치 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4호: 23-41.
- 박석희. (2012). 퍼지집합 분석법을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분석과 함의. 『한국행정연구』, 제21권 3호: 175-202.
- 방청록. (2009). 한국의 개방적 통상정책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아태연구』, 제16권 제1호: 79-94.
- 양고운·박형준. (2013). 지방정부 간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의 성공요인 탐색: 퍼지집합 질적 비교분석(fsQCA)의 적용.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5권 제1호: 91-116.
- 조경훈·박형준. (2015).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의 지속 요인 연구: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4권 제2호: 29-64.
- _____. (2015). 퍼지셋 질적비교사례 2단계 분석법의 정책분석에 활용: 입지갈등 지속기간의 원인탐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4호: 311-332.
- 최낙균. (2002). 주요국의 통상조직 운영현황 및 시사점. 『2002.8.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관 정부의 대외통상협상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인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발표자료』, 8-18.
- 최병선. (1996). 통상행정체제의 개편방안. 『행정논총』, 34(1): 51-84.
- 최영준. (2009).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5권 제3호: 307-337.
- 최원목. (2003). 우리 통상조직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국제경제법연구』, 제1권: 1-29.
- 하태수. (2015). 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51-74.
- 홍석빈. (2014).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변화와 지속방향 연구- 박근혜 정부 통상행정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지』, 제39권 제3호: 261-292.
- Kvist, Jon. (1999). Welfare Reform in the Nordic Countries in the 1990s : Using Fuzzy Set Theory to Assess Conformity to Ideal Typ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3):

231-252.

Ragin,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민주주의 지표: www.eiu.com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세계경제포럼(WEF) 경쟁력지수(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reports.weforum.org

세계무역기구: www.wto.org

세계은행 각국 경제통계(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worldbank.org

세계은행 영업환경지수(Ease of Doing Business): www.doingbusiness.org

세계은행 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icsid.worldbank.org

오이시디(OECD) 통계: www.oecd.org

외교부: www.mofa.go.kr

_____. (2015). 『2015 유엔개황』. 서울: 외교부.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유럽연합(EU)회원국교섭조직: europa.eu/about-eu/countries/member-countries

자연자원의 GDP 대비 비중: www.indexmundi.com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www.fta.go.kr/main/situation/fta/world

재외공관: www.embassy-worldwide.com

코트라(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탈: www.globalwindow.org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www.kosis.kr

헤리티지재단: www.heritage.org

鄭秉和: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제·통상외교다.

차亨峻: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관리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정책수단과 제도설계, 지방자치제도, 정부규제 등이다. 2009년 미국행정학회에서 최우수 미국행정학회보 학술논문상인 Mosher Award를 수상했다.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Urban Affairs Review*,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Management Review* 등 다수의 해외 저널과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보」, 「정책학회보」, 「행정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등 국내외 학술저널에 다수의 연구 업적물을 게재하고 있다(hjpark72@skku.edu).

논문접수일: 2016. 10. 27 / 게재확정일: 2016. 12. 2